

늘어나는 노인인구... 눈길 끄는 실버복지

**장흥군 '맞춤형 노인정책' 성인용 기저귀 지원 사업
강진군 진료비 전액 지원·독거노인 안전 알림서비스
고흥군 의료비 급증... 1인당 年 263만원 전국 최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한 '초고령사회'다. 지난달 말 전남 전체인구(189만4426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0만7790명으로 21.5%에 이른다. 노인인구가 늘면서 의료비 지출도 늘어나는가 하면, 노인들을 위한 이색 정책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노인들을 위한 기저귀 지원=장흥지역의 11월 말 노인인구는 1만2684명으로 전체 인구(4만265명)의 31.5%에 이른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의료비 지출도 늘어나고 복지비도 증가했다. 날로 늘어나는 노인들을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는 말이

나올만하다.

장흥군이 추진중인 '성인용기저귀 지원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는 노인정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장흥군 대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질환과 장애로 병상에 누워 생활하는 재가 어르신들을 위한 '셀 틈 없는 어르신 돌봄, 성인용기저귀 지원사업'을 추진중이다.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거쳐 발굴한 정책으로 필요로 하는 노인성 질환 및 장애를 겪고 있는 어르신 10명을 선정, 3개월분 기저귀를 지원

하는 등 사업을 펼쳤다.

어르신들은 "기저귀를 날마다 쓰기 때문에 매달 구입 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 필요한 물건을 지원해줘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의료비 급증=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내놓은 '2016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고흥지역 노인들은 1인당 연평균 진료비로 263만원을 써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 3년(2013~2015)간 시군구별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부안군이 가장 많았지만 고흥의 노인 인구가 늘면서 상황이 역전됐다는 게 의료계 분석이다.

그나마 고흥의 경우 조사 당시 노인 인구 비율(37.3%)과 현재 노인인구가 달라 연평균 진료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흥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1월 말 기준으로 2만5511명. 전체 인구(6만6880명)의 38.1%로 전남지역에서 가장 높다.

의료기관 이용이 많아지면서 강진을 비롯, 전남지역 9개 자치단체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강진은 더 나아가 1500가구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를 추진중이다. 지역 내 홀로 거주하는 노인들 집에 활동감지센서를 부착, 일정기간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으면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몸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강진=남철희기자 chou@ /고흥=주각중기자 gju@



장흥군은 지난달 30일 장흥군민회관 대강당에서 김성 장흥군수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흥 청정해역 갯벌생태산업특구 선포식'을 개최했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 청정해역 갯벌생태산업특구 선포식

3개 분야 10개 사업 추진

장흥군이 '청정해역 갯벌생태산업특구'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7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장흥군민회관 대강당에서 '장흥 청정해역 갯벌생태산업특구' 선포식을 열고 청정해역 만들기를 다짐하는 한편, 청정해역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장흥군은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청정해역 특구로 지정된 점을 감안, 지역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선포식을 통해 청정해역 만들기를 다짐했다. 특랑만 해역의 수질은 1~2등급 수준으로 인근 바다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최초로 산(酸)을 사용하지 않는 무

산김 양식을 시작하면서 바다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흥군은 올해 3000억원 규모의 어업 생산소득이 2021년에는 4850억원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흥군은 또 특구 지정을 계기로 생태복원사업과 생산기반 확충사업, 유통 및 체험 활성화 등 3개 분야 10개 단위사업을 추진, 청정해역 브랜드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군은 청정해역 브랜드를 관광 자원으로 적극 활용,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특산물 생산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도 인공 바다보다 품질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영암에 경운대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착공



영암에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이 조성된다. <영암군 제공>

영암에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이 조성된다.

7일 영암군에 따르면 경운대는 지난달 28일 영암읍 송평리 영암천 고수부지에서 '경운대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기공식(사진)을 개최했다.

이·착륙장은 길이 800m, 폭 25m로 내년 2월 완공될 예정이다.

경운대는 경북 구미에 위치한 대학으로 2011년 항공학과를 개설하고 항공인력을 양성해오다 항공특성화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독자적인 이·착

륙장 확보에 공을 들여왔다.

경운대는 무안공항과 일정 거리를 두고 경·비행기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않은 넓은 평야지대 등을 감안, 영암지역에 이·착륙장을 건설키로 했다.

경운대는 이·착륙장이 조성되면 교육용 경비행기 5대를 운영, 항공인력 양성에 나설 예정이다. 경운대는 또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항공운행학과 3·4학년생과 직원이 체류하게 될 기숙사 겸 강의동도 영암읍 일대에 조성할 예정이다.

/영암=전봉희기자 jbh@

장흥 공익용 산지

**전체 14%인 5519ha
소유주 "재산권 제한"**

정부와 지자체가 공익용 산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치지 않으면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장흥군에 따르면 일부 산지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 등으로 산지 개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정부와 지자체 등이 공익용 산지로 묶어 놓는 바람에 적극적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공익용 산지의 경우 산림청 주도로 군사시설, 문화재, 야생생물, 상수원보호 목적 등을 이유로 해당 산지 소유자의 동의 절차를 구하지 않은채 임의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소유자들 주장이다.

매매 등 적극적인 재산권 행사는 커녕, 효율적인 산지이용을 하는데도 제약을 받고 있지만 해제 절차도 까다로워 사실상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장흥군의 경우 공익용 산지 해제 사례도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한편, 장흥군 공익용산지는 전체 산지면적(4만10ha)의 13.8%인 5519ha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지난 10월 강진 마량항 바다를 배경으로 놀토수산시장에서 펼쳐진 수산물 요리경연대회.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강진군 제공>

강진 마량놀토수산시장 27만명 찾아 23억 매출

4월부터 44차례 운영

관광레저형 시장 자리매김

강진 마량항에서 매주 토요일 열리는 놀토수산시장이 남해안 최고의 관광레저형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강진군에 따르면 놀토수산시장은 지난 4월1일 개장, 지난달 25일까지 44차례 운영되면서 23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전남 작은 바닷가를 찾은 방문객만 27만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방문객은 6000명으로 집계됐고 하루 매출액도 5200만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매출액 20억원·방문객 24만명)에 견줘 늘어난 것으로, 마량놀토수산시장이 관광레저형 시장으로 확고하게 자리매

김했다는 평이 나올만하다.

강진군이 '최고 신선, 최고 품질, 최고 저렴 등 '3최'를 내걸고 수입산·비브리오패균·바가지요금 없는 '3무' 약속을 실천하는데 공을 들인 점도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최고 신선한 제철 수산물을 활용, 연중 20~30% 특별할인판매를 추진하면서 즐길만한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다보니 관광객, 여행객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났다는 것이다.

봄에는 갑오징어·주꾸미, 여름 농어·전복·갯장어·된장물회, 가을 전어·꽃게·낙지·대하 등으로 제철 수산물을 싸게 판매하고 강진적한한우도 할인해 제공하는 한편, 냉장고, LED TV, 제습기 등 고품질 행사도 마련해 나들이객들을 불러모았다.

마량토요음악회 콘텐츠도 확대하고 가

수 중심 공연이 아닌, 마술과 밸리댄스, 인디밴드 공연, 관광객이 참여해 함께 즐기는 즉석 노래자랑 등으로 부대행사를 넣은 점도 한몫을 했다.

강진군은 내년 마량놀토수산시장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유명 요리사 초청 수산물 음식 시식회, 이색 이벤트 등 놀토수산시장의 전문화를 꾀하면서 운영사항 평가보고회, 설문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개선사항을 발굴,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볼거리와 편의공간도 확충, 배 모양의 포토존 및 휴게공간을 신규로 조성하고 타 일벽화도 꾸민다.

강진군 관계자는 "강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투자 가치 좋은 물건, 회사 사정상 금매합니다. 주인직매 H. 010-3605-5000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209, 209-1번지-답 203평 147-4, 11번지-대 231평 147-15번지-전 83평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매매 - 9억 3000만원 (평당 180만원)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8억 5000만 (평당 60만원)

콘도 / 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 협의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15층, 15평
- 전망좋은, 주거겸 사무실
- 내부울수리, 즉시 입주가능
- 매매 - 3,600만원

공산면, 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1층,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함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매매-5200만원(조정가)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팻섬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향후가치 100억
- 타 부동산 교환가
- 매매 - 협의

거문도, 펜션부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61-1
- 토지 49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코너, 전망좋은
- 매매 - 2500만원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 6층중 4층 전체, 210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300만원 임대 가능
- 매매 - 8억 3천만원